

신학 학술지의 색인에 관한 연구*

Analytical Study on the Index Terms in the Theological Journals

유 영 준(Yeong-Jun Yoo)**

< 목 차 >

I. 서론	IV. 색인어 분석
II. 연구 목적과 방법	1.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 연구의 목적	2.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
2. 연구의 방법	학술지
III. 선행연구	V. 결론

초 록

이 논문에서는 신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저자가 직접 색인한 비통제색인어와 LCSH의 통제색인어의 색인의 형태와 의미를 기존의 색인어 관련 지침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다 정교한 색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저자는 비통제색인어에서는 명사구와 복합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신학적 지식과 더불어 색인 기법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정확한 색인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LCSH에서는 불필요한 색인어와 괄호 한정어 등을 분석하였는데, 신학적 지식보다는 LCSH 자체의 주표목과 세목의 구조에서 오는 비일관성과 오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색인시스템, 비통제색인어, 통제색인어, 신학학술지, 신학용어, LCSH

ABSTRACT

This study has analyzed the uncontrolled index terms in the theological journal, which were assigned by the authors and the LCSH subject headings in their form and meaning, compared to the standards of index terms and proposed much more sophisticated indexing system. In the uncontrolled index terms, noun phrases and compound terms are analyzed, this study found that indexers have to have theological knowledge and indexing techniques in order to assign more precise index terms. In the LCSH, unnecessary index terms and parenthetical qualifier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it,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problems of inconsistency and errors raised from the basic index structure of LCSH.

Keywords: Indexing System, Uncontrolled Index Terms, Controlled Index Terms, Theological Journals, Theological Terms, LCSH

* 이 논문은 2009년 나사렛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나사렛대학교 전자문헌정보학과 진임강사(youngjune@kornu.ac.kr)

• 접수일: 2009년 8월 19일 • 최종심사일: 2009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9월 21일

I. 서론

전문적으로 특정 분야를 연구하는 이용자가 자신이 연구할 특정 주제 분야의 관련 문헌들을 도서관 검색시스템에서 검색하거나 일반 이용자가 웹에서 자신이 찾으려고 하는 대상을 표현한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하는 두 경우를 모두 주제 검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 검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색인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이용자가 입력한 용어와 도서관이나 웹의 정보자료를 색인한 색인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용어와 연결된 정보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만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자료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검색 결과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용자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색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색인은 검색의 대상이 되는 문헌의 내용을 색인어로 표현하는데, 색인어는 문헌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어를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제공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 시에 적합한 검색어를 선택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문헌을 한 번의 검색으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도서관목록에서는 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의 주제 개념을 표현한 용어들을 모아놓은 것을 주제명표 혹은 주제명목록이라고 하였고, 이용자가 이 주제명표를 이용하여 자신이 검색하려고 하는 주제와 가장 유사한 주제명 혹은 용어를 참조하여, 자신이 원하는 문헌들을 검색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이나 웹에서는 주제명표를 시소러스 혹은 색인데이터베이스 등의 이름으로 불러왔다. 그러나 이 두 개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기능은 같고, 다만 그 기원이 다를 뿐이다. 색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두 개념들은 전혀 다른 점이 없다는 뜻이다.

이 논문에서는 색인이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술함으로써 색인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목록은 기계가독목록의 특정 필드에 주제명을 입력하고 있고, 색인데이터베이스나 시소러스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검색어를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선택한 용어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에서는 미국국회도서관의 주제명표(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의학주제명표(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두 주제명표는 그 명칭에 '주제명'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MeSH는 시소러스의 범주에 더 가까우며, LCSH는 그 색인어의 구조가 주제명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 국회도서관기사색인서비스에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주제를 색인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색인어를 그대로 653필드에 입력하거나 아니면 국회도서관 자체에서 색인어를 부여하

기도 한다.

이와 같이 653필드에 입력된 색인어와 LCSH 주제명을 색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차이점은 색인어의 통제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저자나 국회도서관에서 부여하는 색인은 자연어색인이고, LCSH와 같은 색인은 통제색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색인시스템의 질은 이 색인어의 구조나 형태에 의해서 좌우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색인시스템의 질은 검색시스템의 성능과 검색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색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어 형태의 색인어와 LCSH의 색인어의 형태와 의미를, 구문론과 의미론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색인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보다 질 높은 색인을 작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II.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국내에서 색인에 관한 연구는 과거에는 전통적인 주제명표나 주제명목록에 관한 것이었고, 전산화가 시작된 이후로는 자동색인에 관한 연구들이 대다수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소러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정교하게 구축된 색인시스템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제명표목록을 만드는 사업도 수행하였고, 국회도서관에서 시소러스를 구축하여 검색 효율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있어왔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에서 학술지기사색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KORMARC의 653필드에 입력된 색인어를 검토해 보면, 그 색인어들의 정교함의 수준이 대단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복합어와 복합어를 구성하는 용어를 분절하여 동시에 색인하는 것이나 지나치게 색인어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반대로 색인어의 수가 적거나 하는 양태를 보인다. 또한 해당 논문의 주제를 보다 특정하게 색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색인어를 입력하는 색인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 주제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직접 색인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복합어가 전혀 분절되지 않았거나, 전치사나 접속사 등을 사용하여 색인어의 형태나 구조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LCSH는 비록 용어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시소러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색인어의 구조나 형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제명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내의 신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색인어의 구조와 형태를 기존의 색인어 혹은 시소러스 관련 표준이나 지침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색인의 구조나 형태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나은 색인을 생성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색인어 분석은 기본적으로 그 색인어의 의미와 구문의 형식 혹은 다른 색인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이 된 학회지는 아래와 같다. 먼저, 국내 신학 학술지로는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을 분석하였는데, 이 학술지는 학진 등재지이다. 또한 '신앙과 학문'은 신학 학술지는 아니지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학회지이다.

그리고 국내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색인은 저자가 직접 색인어를 부여하거나 국회도서관에서 색인어를 부여한 비통제 자연언어 색인이다.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은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위 학술지들에 게재된 논문들의 색인어 2,202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논문의 저자들이 직접 부여한 색인어를 분석하였고, 2000년부터 2001년의 논문들은 국회도서관의 색인어를 분석하였다.

외국의 학술지는 'Calvin Theological Journal'과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로 연구자(2008)가 발표한 신학용어 분류의 대상이 되었던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는 학술지들이다.

이 두 학술지들은 모두 LCSH의 주제명으로 색인되었으므로 통제색인어들이다. 그리고 국내 학술지와는 다르게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색인한 색인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색인어의 수는 'Calvin Theological Journal'의 색인어가 693개이었고,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의 색인어 수는 1,017개이었다. 그래서 외국 색인어의 수는 1,710개 이었고, 국내와 국외의 색인어 수는 3,912개 이었다.

이러한 분석의 준거로 선택한 기준은 최석두의 시소러스 개발지침¹⁾의 6장 색인어와 7장 복합어 그리고 NISO 39.19-2005²⁾ 6장 용어의 선택, 범위와 형태와 7장 복합어 부분이다.

1) 최석두, 시소러스 개발지침(서울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회, 이화여자대학교, 2000).

2) NISO,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Format, and Management of Monolingual Controlled Vocabularies. ANSI-NISO Z39.19-2005. [cited 2009. 7. 27].

Ⅲ. 선행연구

김태수³⁾는 전통적인 주제명표에서 사용된 표목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목구조를 제안하기 위해서 LCSH와 MeSH의 표목구조의 비일관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주제명표목의 구조에 나타난 다양한 표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가능한 한 구 형태의 표목들을 분절할 것과 자연어순으로 표목을 기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한정어에 의한 주표목의 확장을 언급하면서 한정어 사용의 장점을 서술하였으며, 세목과 참조구조의 개선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주제명표의 구조를 온라인 환경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주제명표가 시소러스와 동일한 구조로 발전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태수의 연구는 전통적인 주제명표목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목록환경에 적합한 주제명표목의 구조를 제안한 데 의의가 있다.

스베노니우스(Svenonius)⁴⁾는 의미론(semantics), 구문론(syntax)과 어용론(pragmatics)의 관점에서 LCSH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특히 의미론에서는 LCSH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5가지 범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색인을 만들 때 반드시 이 용어들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조합 색인에서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는데, LCSH에서는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색인어를 배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또한 LCSH에서 고수하고 있는 접속사나 전치사구 형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어의 분절을 제안하고 있으며, LCSH에서 용어를 분절하지 않는 것은 검색의 효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라는 점도 밝혔다.

스터드웰(Studwell)⁵⁾도 주제명표를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쉽게 다른 언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and' 접속사, 도치구조 혹은 구 형태의 구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보다 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효과적인 주제 접근 시스템이 되기 위한 주제명의 형태와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을 은 제안하였다. 이 원칙들 일부는 아래와 같다. 주제명의 길이가 짧아야 한다. 즉 색인을 구성하는 용어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바람직하지 않고, 도치구조와 구 형태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LCSH의 '='와 '/' 기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구두법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Studwell의 생각은 보편적인 주제 접근 환경(Universal Subject Environment: USE)이라고 그가 명명한 새로운 주제 접근 시스템의 설계 원칙들의 일부다.

위의 세 연구는 색인 전반에 관한 논문이었지만, 위(Iwe)⁶⁾는 문학과 문헌정보학(librarianship)

3) 김태수, "주제명표목의 구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1997. 6), pp.77-105.

4) Svenonius E., "LCSH: Semantics, Syntax and Specificity,"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9, No.1(2000), pp.17-30.

5) Studwell William E., "Universal Subject Environment: Aspirations for a Multinational, Multicultural, and Multilingual Subject Access System,"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Vol.16, No.3(1999), pp.21-30.

분야의 논문들을 LCSH로 색인한 색인어들을 분석했는데, LCSH의 구문론 관련 규정과 의미론적 일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관성과 특정성은 LCSH를 비판하는 데 빈번하게 이용되는 용어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구문론적 유형들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특정한 주제명을 결정하도록 목록 자를 도와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LCSH의 구조들을 에 관한 두 개념들의 적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Iwe는 위의 세 논문들과는 다르게 LCSH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색인어의 유형 중 어느 유형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분석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이 통제 색인인 LCSH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성숙⁷⁾의 연구는 비록 전문 학술지가 아닌 대학도서관의 폭소노미 태그를 대상으로 용어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말하자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자연언어로 태깅한 자연언어 색인을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용자들이 직접 색인한 용어들을 분석하였지만, 이 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통제 어휘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이용자들이 생성한 태그이었지만,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복합어, 명사구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 대상도 유사하고 분석의 준거가 된 표준도 동일하다. 그러나 용어의 형태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 것과 이 연구가 색인어의 형태뿐만 아니라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색인 구축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Svenonius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색인어의 구조나 형태를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연구자들이 문헌정보학 이외의 주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그런 주제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용어들을 분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IV. 색인어 분석

1. 한국기독교신학논총

가. 명사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의 색인은 논문의 저자들이 직접 색인한 경우로, 총 색인어 수는 2,202개이고, 분석 대상이 된 색인어의 유형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6) Iwe, J. I., "Linguistics and Information Processing: Provision of Syntactic and Semantic Consistency in the Language of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LCSH) Pertaining to Literature and Librarianship: A Comparative Analysi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32, No.2(2002), pp.107-126.

7) 이성숙, "대학도서관 폭소노미태그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8. 12), pp.463-480.

〈표 1〉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색인의 유형별 구성

색인어 유형		색인어 수	비율
명사구	격조사와 결합	38	7
	접속사로 결합	6	
	형용사와 결합	106	
복합어		777	35
단일어		792	36
고유명사		483	22
합 계		2,202	100

단일어와 복합어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신학 학술지 색인에서 복합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유명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신학이라는 주제 영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학자나 지명 등이 상당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명사구에서는 형용사와 결합한 형태가 가장 많았고 격조사와 결합한 색인어가 위의 표에 제시된 색인어의 수는 동일한 색인어를 중복해서 계산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명사구와 복합어를 주된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최석두는 용어의 형태 중에서 “대부분의 색인어는 명사 혹은 명사구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⁸⁾ 그러나 명사구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한정어 사용에서 ‘하느님의 교회(클리브랜드: 테네시) [- 敎會]’의 사례를 통해서, 명사구인 용어 중에서 정착된 용어를 색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용어의 표기’의 ‘품사’에서 “일반 시소러스일 경우 용어는 원칙적으로 명사이다. 단, 다음과 같이 명사구나 동명사가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는 이를 용어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계층구조를 이룰 때 계층관계(상하관계) 설정 상 필요할 때는 명사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사구를 색인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며 ‘일반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위의 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의 색인어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죽음의 신학’이라는 명사구 색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 용어는 독일의 신학자 칼 라너(Karl Rahner)가 자신의 저작인 ‘죽음의 신학’에서 사용한 독특한 용어이면서 고유명사로 볼 수도 있다. 라너는 이 용어를 통해서 자신의 신학 사상의 일부와 함께 죽음과 신학의 관련성도 설명하고 있어서, 이러한 명사구를 그대로 색인할 것인지 아니면 분절하여 ‘죽음’과 ‘신학’으로 색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간단하지만은 않다. 분절하지 않고 그대로 색인하면 정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두 용어로 분절할 경우에는 재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에서는 부적합문헌이 검색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에서 ‘죽음’과 ‘신학’의 용어를 조합해서 검색했을 때, 신의 죽음을 다룬 융엘(Eberhard Jungel)의 문헌과 신학의 죽음에 대한 논문들과 함께 적합한 문헌도 검색되어 부적합

8) 최석두, 전계서, p.102.

문헌의 검색을 확인하였다(2009.07.30).

그리고 김태수⁹⁾도 LCSH의 주제명표목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구표목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관습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제명표목으로서 명사구표목의 사용을 인정하였다. 시소러스 개발 지침에서 명사구의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해당 지침이 일반적인 시소러스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소러스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격조사를 포함하는 명사구의 분절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두 번째로 분석할 용어는 ‘성도의 선택’으로, 이 용어의 의미와 명사구를 구성하는 용어간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성도의 선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 문헌에 함께 색인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성도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신학적 관점으로 말하면, 펠라기안(Pelagian)이나 아르미니안(Arminian)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나 선택 혹은 예정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도덕적 완성 혹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이 주장과는 다르게 개혁신학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도의 선택’을 분절했을 때, 구원 받도록 선택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논문들이 검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적합한 문헌이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그리고 구분론적 관점에서 이 용어를 분석하면 ‘성도’가 ‘선택’이라는 용어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요한의 계시’를 분석하겠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령이 요한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성경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더 의미의 범위를 좁힌다면, 요한계시록만을 지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중 하나라면, ‘요한의 계시’라는 명사구를 색인어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어를 분절할 경우에는, ‘요한’은 동형의외어를 사용해서 한정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사도 요한인지 세례 요한인지를 색인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정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지만, ‘요한의 계시’는 사도 요한의 계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9) 김태수, 전계서, p.85.

이와 같이 명사구의 분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색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계적으로 명사구를 분절하는 것은 대단히 편리한 방법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색인할 용어의 정확한 주제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의 세 용어와 유사한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고유의 특성', '몸의 신학', '행위의 책', '삶의 질', '생명의 해석학', '생명의 책', '여성의 눈으로', '사유의 흐름', '사도들의 사도', '매개의 논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죄수', '상상의 공동체' 등이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나라'와 함께 쓰이고 있어서 두 용어 간에는 통일성이 없지만, 이 용어들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의미로 동일하기 때문에 두 용어 중에서 특정한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에서 분석한 세 용어의 함께 19개의 색인은 분절하지 않고 격조사와 결합된 형태로 색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의 갱신', '족보의 기록형태', '제사장의 공헌', '믿음의 동기', '바울의 적대자들', '그레코-로마세계의 상호성', '모성의 신성화', '사마리아의 멸망', '삶의 의미', '선교의 목표', '성령의 역사', '종교 간의 대화', '종교의 자유', '텍스트간의 관련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교', '여성의 경험' 등 19의 격조사와 결합한 명사구는 분절하여 색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절해야 할 격조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들의 일부에서는 명사구를 구성하는 두 용어가 주어 혹은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갱신'에서 '교회'는 '갱신'되어야 할 대상이며, '제사장의 공헌'에서 '제사장'이 특정한 분야나 일에 있어서 '공헌'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격조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를 구성하는 두 용어는 주로 특정한 일을 행하는 주체나 대상과 그 주체나 대상과 연관된 행동이나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명사구를 그대로 색인하거나 분절하기가 모호한 명사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표적의 역사'는 일견 분절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사'와 함께 색인이 되어 있어서 역사라는 의미가 중복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표적은 당연히 교회사라는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일 논문에 함께 색인된 다른 용어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히 분절할 경우 한 색인어가 두 번 이상 색인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여 색인어의 수를 줄여야 한다.

또한 '자연의 신학'은 '자연신학'으로 격조사를 생략할 수는 있지만, 분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어 형태로 색인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위에서 '하나님나라'로 색인하는 것과 동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하겠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색인어에서는 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는 '신학과 윤리', '에딕과 에딕', '한폴이와 한맞이', '타자와 책임', '화해와 생명' 등 5개에 불과했으며, 모두 분절하면 된다. 최석두의 시

소리스 개발지침에서도 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에 대해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명사구 이외에도 형용사 한정어와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 형태의 색인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사용된 관용적인 용어이고, ‘신비한 연합’은 라틴어의 ‘unio mystica’를 번역한 용어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로 이미 신학적으로 정착된 용어이다. 따라서 명사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혹은 한정어로 이루어진 명사구는 분절하여 별개의 색인어로 색인하지 않고 띄어 써서 명사구 형태 그대로 색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형태의 명사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상호 연관적 인과율’ 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어 맨 뒤에 ‘적(的)’을 붙이는 경우인데, 우리말의 언어 습관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용사 한정어와 결합된 형태의 명사구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간곡한 권고’, ‘스스로 자라는 씨’, ‘기름 부은 여인’, ‘내적 가치’, ‘능동적 시청자’, ‘독재적 폭력’, ‘매고 푸는 권세’, ‘모르페 기독교론’, ‘변형적 교육과정’, ‘비판적 상황화’, ‘사도적 전통’, ‘새로운 피조물’, ‘설명 가능한 법’, ‘실존적 체험’, ‘열린 예배’, ‘영적 전투’, ‘예언적 설교’, ‘의로운 전쟁론’ 등의 색인어들이다.

나. 복합어

복합어를 띄어 쓸 것인지 아니면 붙여서 그대로 쓸 것인지는 색인어를 미리 조합하는 전조합색인과 후조합색인의 이론적 측면과 함께 검색 효율이라는 검색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김태수나 최석두에 따르면, 띄어 쓰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그리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정착된 용어는 붙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원칙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신학 용어 중에서 붙여 써야 할 복합어들을 먼저 살펴보겠다. ‘평양대부흥운동’은 지명인 ‘평양’과 ‘대부흥운동’으로 띄어 써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붙여 쓰는 것이 오히려 나아 보인다. ‘평양대부흥운동’은 최근 한국교회와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인용되는 용어로서 고유명사처럼 간주하여 분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용어는 ‘무형교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문자적으로는 형태가 없는 교회라는 의미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보편교회’(catholic church 혹은 universal church)의 의미를 갖는다. 본래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무형교회’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말하자면 신구 약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포함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신학적으로 이미 합

의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교회’는 붙여서 색인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유형교회’, ‘문학비평’, ‘역사비평’, ‘본문비평’, ‘하나님나라’ 등의 용어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용어는 ‘교회여성’으로, ‘교회’와 ‘여성’으로 띄어 쓰는 것이 타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띄어 쓸 경우에 ‘여성’이 믿음을 가진 여성인지 아닌지 분명치가 않다. 여기에서 ‘교회여성’은 ‘교회 안에 있는 여성’의 의미로, ‘교회’가 ‘여성’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붙여서 색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나그네신학’, ‘감정신학’, ‘성결신학’, ‘성령신학’, ‘음악목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대부분의 색인어들은 신학과 결합된 복합어로, 신학의 특정한 연구 영역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용어의 범주에 속하는 용어들은 복합어 앞부분의 용어가 뒷부분의 용어를 한정한다는 구문론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용어들은 신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미 정착된 용어들이고,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용어들은 최근에 쓰이기 시작하였거나 임의로 신학의 특정한 관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제부터는 복합어를 구성하는 용어들을 띄어 쓰는 사례들을 설명하겠다. 먼저, ‘죄고백’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데, ‘죄’와 ‘고백’으로 띄어 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죄’와 ‘고백’은 주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죄’가 ‘고백’을 한정한다고 보기보다는 지은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원인과 결과 혹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죄’라는 용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분절하여 색인함으로써 검색 시점에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다른 문헌들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고백’이 항상 죄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앙을 고백 한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신앙고백’이나 ‘신앙고백서’와 같은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형태상으로 띄어 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복합어를 구성하는 용어들을 띄어 쓰는 경우에 지명이 복합어의 앞부분에 오는 복합어 형태도 있다. 먼저, ‘한국구약성경연구’는 ‘한국’과 ‘구약성경연구’로 분절하여 색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명을 분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구약성경연구’에서 ‘연구’를 분절하지 않는 이유는 ‘연구’에는 주제적 요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내포된 주제적 성격과 분리되어 색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색인어 사례인 ‘남북한 문화통합’도 ‘남북한’과 ‘문화통합’으로 분절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여성’과 ‘북한교회’와 같은 색인어들은 띄어 써야할지 애매하다. 위의 경우처럼 지명을 분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한정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결정하기가 모호한 경우에는 일반 원칙을 적용해서 일관성 있게 띄어 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개선점

명사구 형태의 색인어에서는 격조사 '의'를 사용한 경우에 기계적으로 분절할 것이 아니라 검색 효율에서의 잡음을 고려하여 분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분석의 예들처럼 신학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격조사를 사용하여 색인한 38개의 색인어들 중에서 중 단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자가 직접 색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합어의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분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색인어의 형태와 더불어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복합어 형태 그대로 색인해야 할 용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그 의미가 정착되어 고유명사적 성격이 강해서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새롭게 출현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어들은 단 34개이었다. 따라서 신학분야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복합어를 띄어 써야 할 용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 학술지

가. 불필요한 색인어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개혁신학 학술지 색인어의 유형별 구성은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의 색인어 분포와 유사하게 단일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영문 학술지에서는 복합어 수가 현저하게 떨어졌고, 오히려 고유명사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분석 대상은 단일어에서 괄호 한정어를 사용한 경우와 도치 형태와 접속사구 그리고 전치사구 색인어들 이었다.

<표 2> 개혁신학 학술지 색인어의 유형별 구성

색인어 유형	색인어 수	비율
도치 형태	117	7
전치사구 형태	120	7
접속사구 형태	29	1
단일어	648	38
복합어	165	10
고유명사	631	37
합 계	1710	100

'Calvin Theological Journal'과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은 LCSH의 구조로 색인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서 기인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중복되는 색인어들을 상당 수 찾아낼 수 있었다.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사례는 구약 성경의 역사와 연대 결정('Bible, Old Testament-History and dating'), 고린도전서 1-4장('Bible, Corinthians I 1-4')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간의

관계('Bible, New Testament-Relation to Old Testament')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색인어 들에서 주표목인 'Bible, Old Testament', 'Bible, Corinthians I 1-4', 'Bible, New Testament'에 서 'Bible'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Old Testament', 'Corinthians I 1-4', 'New Testament' 등은 이미 성경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경'이라는 색인어를 반복해서 색인할 필요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한 학자나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색인어들의 사례로는 '성경, 신약-헬레니즘의 영향'('Bible, New Testament-Hellenistic influence')과 '성경, 신약-윤리학'('Bible, New Testament-Ethics') 등이 있었다.

위의 사례들과는 색인어간의 구조나 형태가 다르지만, 불필요하게 색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례 들을 여기에서 기술하겠다. 이 사례들은 세목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괄호 한정어를 사용한 색인어와도 연관되어 있다. 먼저, 하나님('God')과 함께 세목으로 사용된 색인어들을 들 수 있는데, '하나님-불변성'('God-Immutability'), '하나님-품성'('God-Personhood'), '하나님-전능성'('God-Omnipotence'), '하나님-섭리'('God-Providence')와 같이 색인하고 있지만, 동 일한 색인어 대해서 'God(Philosophy)'로 색인하고 있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괄호 한정어를 사용한 색인어와 다른 점은 세목들이 의미적으로 유사 한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개념을 표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세목들의 의미 범주를 분석해 보면 '불변성'('Immutability')과 '전능 성'('Omnipotence')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들이고, '품성'('Personhood')은 구체적인 속 성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보다 더 추상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섭 리'('Providence')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혹은 우주를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특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중요한 점은 위에서 예로 든 'Immutability', 'Omnipotence', 'Personhood' 그리고 'Providence'와 같은 용어들은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하는 용어들므로 주표목인 'God'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God's Immutability'나 'God's Providence'와 같이 소유격을 사용해 서 색인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LCSH에서 소유격을 사용한 색인어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Lord's Supper'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의 경우 소유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라는 소유격 조사를 사용해야 하지만, 영어의 경우 소유격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 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색인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목들의 의미상의 차이나 주표목에서 불필요하게 동일한 용어가 반복되는 문 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자가 이 주제명들을 사용해서 검색할 때에도, 두 색인어 중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특정한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의 참조나

시소러스에서 사용하는 우선어와 비우선어 방식으로 두 용어를 연결시켜 준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두 색인어 중 특정한 색인어를 선택하여 검색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문헌들을 검색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세목들은 LCSH에서 규정한 주제 영역(domain)을 구분하기 위한 괄호 한정어를 사용한 '철학'('Philosophy')과 비교했을 때는 일관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말하자면 세목을 사용해야 할 경우와 괄호 한정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를 구분하는 것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세목의 사용과 괄호 한정어를 구분하여 색인함으로써 실제로 도서관에서 목록하는 사서가 LCSH를 이용하여 색인어를 부여하거나 이용자가 주제명을 참조하여 검색할 때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색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 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들 이외에서도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는 색인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주로 특정 신학자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신학 사상과 관련된 문헌들을 색인할 때 불필요한 색인어를 기술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lvin, Jean, 1509~1564-Theology-Soteriology'는 개혁신학의 핵심인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과 개혁신학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집대성한 존 칼빈(John Calvin)의 신학 중에서 구원론(Soteriology)에 대한 칼빈의 해석 혹은 견해라는 의미의 색인어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학('Theology')과 구원론('Soteriology')의 두 개념은 계층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신학의 하위 연구 범주를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의 하위 영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이와 관련하여 Svenonius¹¹⁾는 LCSH의 범주 의미론(category semantics)에서 언급하면서, LCSH에서는 5가지 범주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색인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주표목과 세목의 관계에서 세목은 주표목을 한정하는(qualifying)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주표목과 세목은 계층관계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세목이 주표목의 하위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 위에서 사례로 든 색인어에서 '신학'('Theology')과 '구원론'('Soteriology')의 관계가 계층 관계이므로, 이러한 색인어의 구조는 LCSH의 기본적인 구조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용어열에서 신학('Theology')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LCSH의 구조적 관점이 아닌 신학 용어의 의미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Theology'이라는 용어를 색인어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위 개념인 'Soteriology'만으로도 칼빈의 신학의 한 영역인 구원론에 관한 논문을 색인한 색인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Michigan : William B. Eedermans Publ., 1996).

11) Svenonius E., *op. cit.*, p.20.

위에서 예로 든 색인어 이외에도 칼빈과 사도바울에 관한 논문들을 색인한 색인어들에서 계층 관계를 이루는 주표목과 세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칼빈의 예정론('Calvin, Jean, 1509~1564-Theology-Predestination')과 신론('Calvin, Jean, 1509~1564-Theology-God') 그리고 사도바울의 죄에 대한 견해('Paul, Saint, Apostle-Theology-Sin'), 율법과 복음('Paul, Saint, Apostle-Theology-Law and gospel'), 교회론('Paul, Saint, Apostle-Theology-Church') 그리고 구원론('Paul, Saint, Apostle-Theology-Soteriology') 등이 있었다.

위에서 기술한 불필요한 색인어들이 LCSH에서 자주 출현하게 되는 배경에는 LCSH의 색인의 가장 기본적인 주표목과 세목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LCSH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색인의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표목과 세목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의미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용어간의 연결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김태수¹²⁾가 지적한 것처럼 용어를 어절 단위로 분절하지 않고, 용어열 형태의 색인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어려움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괄호 한정어

위에서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LCSH의 괄호 한정어 사례를 분석하였다. NISO¹³⁾의 지침에서는 괄호 한정어의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괄호 한정어는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동형이의어 특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괄호 한정어의 사용은 언제나 가능하다면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괄호 한정어가 검색이나 배열(filing)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지적은 검색 시에 이용자가 괄호 한정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색인어들을 자모순으로 배열함에 있어서 괄호로 인한 배열순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괄호 한정어와 관련된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학 분야 색인어와 연관되는 내용만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¹⁴⁾ 이 표준에서는 괄호 한정어 보다는 합성어(compound term)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동형이의어를 구분하는 것 이외에도 색인어의 주제 영역(domain)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괄호 한정어를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God(Philosophy)'를 들 수 있다.

먼저, 괄호 한정어를 사용한 색인어들 중에서 한정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탈자유주의'('Postliberalism(Religion)')는 20세기 후반에 기독교 신학에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로서, 주로 신학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12) 김태수, 전계서.

13) NISO, *op. cit.*, p.33.

14) NISO, *Ibid.*

한정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중의성으로 인해 모호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혁 신학 학술지에서 사용된 괄호 한정어들이 동형의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색인어의 주제 영역이나 의미상의 맥락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들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색인어들은 다음과 같다.

‘행위자/동인(‘Agent(Philosophy)’), ‘전제(‘Presupposition(Logic)’), ‘원칙(‘Principles(Ethics)’), ‘화행(‘Speech acts(Linguistics)’), ‘반사실적인 것(‘Counterfactuals(Logic)’ 등 신학과 연관된 다른 주제 영역을 한정하기 위한 사례들도 있었고, ‘권력(‘Power(Theology)’), ‘율법(‘Law(Theology)’), ‘역사(‘History(Theology)’), ‘선택(‘Election(Theology)’), ‘심판(‘Judgment(Theology)’), ‘개별주의(‘Particularism(Theology)’), ‘보상(‘Reward(Theology)’), ‘순종(‘Obedience(Theology)’), ‘공동체(‘Community(Theology)’), ‘전통(‘Tradition(Theology)’), ‘언약(‘Promise(Theology)’ 등의 색인어들처럼 다른 주제 영역에서도 폭넓게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사용한 사례들도 있었다.

그리고 ‘언약(‘Covenants(Theology)’), ‘영적 생활(‘Spiritual life(Christianity)’), ‘성도의 견인(‘Perseverance(Theology)’), ‘남은 자(‘Remnant(Theology)’ 등의 색인어들은 사전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신학 용어로서 매우 독특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제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 한정어를 사용한 색인어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우유(‘Milk(in religion, folklore)’와 별(‘Stars(in religion, folklore)’과 같은 색인어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평이한 용어들이지만, 우유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사용된 용어로 ‘젖’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구절을 예로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신령한 젖’과 같은 용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시에 나타난 ‘별’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괄호 한정어 안에 있는 전통적인 이야기(‘folklore’)가 지칭하는 것처럼, 성경이나 혹은 신화 등의 특정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매우 구체적이고 독특한 용어를 한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Old School’이나 ‘New School’은 주제 영역을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형의어를 한정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모호하지만, 미국에서의 장로교회를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Old School)’과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New School)’ 처럼 구분한 것을 볼 때, 동형의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LCSH의 설명에서 사용된 ‘domain’을 주제 영역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인 특정한 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혁신학학술지에서 사용된 괄호 한정어는 특정 색인어의 주제 영역이나 범주를 한정함으로써 해당 색인어의 문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 도치 형태의 색인어

LCSH의 주제명을 사용하여 색인어를 배정했기 때문에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과 'Calvin Theological Journal'은 주표목과 세목의 구조를 사용해서 색인어를 부여한 것을 전제로 아래의 분석 내용을 전개하였다.

명사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도치된 색인어, 접속사로 연결된 색인어, 전치사구 색인어와 단일명사 색인어이지만 불필요한 색인어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례들이 많았다. 특히 불필요한 색인어의 경우, 색인어들이 서로 계층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먼저, 도치된 색인어들에 대해서 기술하겠다. '개혁신학'('Theology, Reformed')을 도치된 형식으로 색인하면서 '개혁교회'('Reformed churches')는 자연어 순으로 색인하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고, '프린스턴 신학'('Princeton Theology')은 자연어 순으로 색인하면서 '교의학'('Theology, Doctrinal')은 도치된 형태의 색인어로 색인하고 있었다. 비록 'Princeton'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자연어순으로 색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한정어의 품사가 고유명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품사모두 한정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자연어순으로 이용자의 언어 관습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비일관성은 심지어 형용사 한정어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있었다. '성윤리학'('Sexual ethics')은 자연어 순으로 기술하였지만, '기독교 윤리학'('Ethics, Christian')은 도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이 경우에도 일관성을 상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도치 형식의 색인어들의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로는, 도치된 형식의 색인어에서 도치된 부분의 용어들이 형용사라는 것이다. 물론 전치사 'of'를 사용한 예가 있기는 하지만, '개혁적'('Reformed'), '교의적'('Doctrinal'), '성경 해석의'('Exegetical') 등 모두 명사를 한정하는 형용사들이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형용사는 도치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장을 서술할 때 자연스러운 용어 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일관적이지 못하고, 위에서 예로 든 '성윤리학'('Sexual ethics')의 경우처럼 이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치된 색인어들은 자연어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식이론'('Knowledge, Theory of'), '상황신학'('Theology, Contextual'), '존재론적 증명'('Proof, Ontological'), '해석학적 설교'('Preaching, Exegetical'), '기독교 사회학'('Sociology, Christian'), '본문비평'('Criticism, Textual'), '문학비평'('Criticism, Literary'), '고대의 왕과 통치자들'('Kings and rulers, Ancient') 등의 도치된 형태의 색인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접속사 구 형태의 색인어

두 개 이상의 명사나 명사구 또는 형용사 구 형식이 접속사 'and'로 결합된 색인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소러스에서도 접속사 구 형식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석두는 계층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사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¹⁵⁾ 여기에서 명사구는 접속사 형태의 색인어를 지칭하는데, 이러한 접속사 구의 사용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LCSH에서는 접속사 구 형태의 색인어를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접속사 구 형태는 명사와 명사를 'and'로 결합한 유형이었다. 예를 들면, '성실함과 거짓됨'('Truthfulness and falsehood'), '신뢰와 의심'('Belief and doubt')과 '질서와 혼돈'('Order and chaos')과 같은 색인어들이었다. 그런데 이 색인어들은 서로 대칭되는 용어들이었고, '위격과 직분'('Person and offices')과 '왕들과 통치자들'('Kings and rulers'), '공의회와 종교회의'('Councils and synods'), '역사와 연대 결정'('History and dating')과 같은 용어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용어들이 접속사로 연결된 사례이었다.

'자유지와 결정'('Free will and determinism')은 복합어와 단일 명사가 결합된 형태이고, 형용사 구 형태의 명사구가 사용된 색인어의 사례에는 '개혁적 배움과 학문'('Reformed learning and scholarship')과 '사회 변화와 교회'('social change and church') 등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접속사 구 형태의 색인어의 사례로서 위의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색인어들은 다음과 같다. '교회와 국가'('Church and state'), '정치학과 기독교'('Politics and Christianity') 등 이었다.

마. 전치사 구 형태의 색인어

전치사 구 형식의 색인어는 두 개 이상의 색인어가 전치사에 의해 결합된 것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의 시온'('Zion in the Bible')과 '성경에서의 여성'('Women in the Bible')인데, 전치사 구는 한글 색인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식으로 전조합 색인인 LCSH에서는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색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전치사는 'of'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in', 'outside', 'after' 등의 전치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치사구 형태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성경에서의 축복과 저주'('Blessing and cursing in the Bible'), '성경에서의 괴물들'('Monsters in the Bible'), '구약 성경에서의 왕들과 통치자들'('Kings and rulers in the Old Testament'), '미국에서의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성경에서의 환상'('Visions in the Bible'), '성경에서의 상징주의'('Symbolism in the Bible') 등의 전치사 구 색인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치사 구 형태의 거의 대부분은 성경과

15) 최석두, 전게서, p.119.

관련된 색인어 이었으며, 특정 지명과 연관된 색인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기술한 다양한 구 형태의 색인어뿐만 아니라 하이픈을 사용한 색인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독자의 반응에 의한 비평'('Reader-response criticism'), '현대주의자와 근본주의자의 논쟁'('Modernist-fundamentalist controversy'),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Self-love')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하이픈을 사용하는 용어들은 관용적인 언어 관습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복합어나 어절 단위로 띄어 써서 색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바. 개선점

LCSH에서 색인어들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색인된 근본적인 이유는 주표목과 세목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색인 구조를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괄호한정어는 해당 색인어가 사용되는 문맥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God'(Personhood)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는 괄호 한정어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주표목과 세목을 사용하는 LCSH의 색인 구조나 색인 작성 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하려는 데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 분야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세목과 유사한 색인어들의 의미상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목으로 색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유형의 괄호 한정어들은 소유격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치 형태의 색인 구조에서 대부분의 한정어가 형용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접속사구 형태의 색인 구조에서는 단일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전치사구 형태의 색인 구조에서는 'of'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기독교신학논총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이 직접 부여한 색인어와 LCSH의 주제명으로 색인된 개혁신학학술지의 색인어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저자가 부여한 색인과 관련된 문제와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명사구와 복합어 형태의 색인어에서 격조사 '의'를 사용한 색인어를 분절할 것인지 아니면 명사구 그대로 색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은 분절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명사구 형태 그대로 색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색인 기법이나 지침을 제대로 적용해야하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의 색인어와 국회도서관의 색인 결과에서처럼 신학 분야의 지식을 가진 저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색인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 말하자면 특정 주제 분야의 지식과 색인 기법에 대한 지식 모두를 갖춘 색인자를 양성하는 것이 보다 정교한 색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CSH의 주제명으로 색인된 'Calvin Theological Journal'과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의 색인어 분석에서는 불필요한 색인어, 괄호 한정어, 도치 형태의 색인어, 접속사 구 형태의 색인어와 전치사구 형태의 색인어를 분석하였다. 불필요한 색인어는 LCSH의 주표목과 세목 구조의 답습으로 인한 부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시소러스의 용어간의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LCSH에서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또한 LCSH에서 사용되고 있는 괄호 한정어의 거의 대부분은 동형의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색인어의 의미와 관련된 특정 주제 영역을 한정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었다.

또한 전체 색인어에서 도치 형태의 색인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치 형태의 색인어 중에서도 일관성 있게 색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도치된 용어의 대부분은 형용사이었다. 그리고 접속사 구 형태에서도 연결 구조에서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분절하여 독립된 용어로 색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소러스에서는 접속사 구 형태의 용어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전치사 구 형태의 색인어 분석에서는 모든 용어들이 성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치사 구를 이루고 있는 단일 명사들을 분절하여 색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혁신학학술지의 색인어들은 신학도서관 사서들이 LCSH의 통제된 주제명을 활용하여 색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용어들의 경우에는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LCSH의 색인 구조 자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가 색인하는 자연어색인과 전통적인 용어열형태의 통제어휘를 고수하는 LCSH의 색인구조는 각각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서관들의 색인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색인 전문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색인 전문가가 색인어를 부여할 때, 구문론과 의미론의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색인함으로써 색인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필요성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특정 주제 분야의 색인 전문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색인 전문가의 교육이나 양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